

『서유견문』의 품사론적 고찰

이 흥식*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서유견문』의 품사론적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다. 『서유견문』은 초기의 국한문 혼용문으로 쓰여졌는데 한문의 특징과 국문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¹⁾ 본고는 이러한 『서유견문』의 언어적 특징 중에서 주로 품사론적인 면을 기술하고자 한다.

『서유견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많은 편이 아니다. 이한섭(1987), 김형철(1990), 이한섭 외(2000)는 주로 어휘와 관련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병근(2000)은 『서유견문』의 어문 사용과 관련된 측면을 고찰하였다. 이병근(2000 : 310)에서 지적하였듯이 『서유견문』의 국한문 혼용문 자료 자체에 대한 국어학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어학적 연구라 하더라도 “漢字主位 國字附屬”的 문장에서 “漢字主位”에 해당하는 한자어 특히 고유명사와 일본 한자어의 영향에 대해 집중되었고 “國字附屬”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國字附屬”에 해당되는 부분이 “漢字主位”와 완전히 구별되어 기술되는 것은 체계적인 언어 기술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한문 혼용문의

* 동경외대 강사.

1) 『서유견문』이 국한문 혼용문의 효시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서유견문』 해제) 이 기문(1984)에서는 정병하가 저술한 『農政撮要』가 최초의 국한문 혼용문의 효시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유길준이 개화기에 본격적인 국한문 혼용문 사용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이병근, 2000).

가장 두드러진 언어적 특징은 한문과 국문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 역시 체계를 이루는 언어에 속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한문에도 종류가 다양하여 한문에 토를 단 정도에서 거의 국문에 가까운 정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³⁾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문과 국문이라는 양극단의 중간 지대 어디엔가 위치하게 된다.⁴⁾

따라서 국한문의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는 것은 이 중간 지대의 확인이 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 지대를 확인하는 방법과 기술하는 방식이다. 국문의 입장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국문의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어 한문의 문법적 특징인데도 그것을 무리하게 국문의 문법에 포함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계가 다른 두 언어의 문법을 단순히 기술하여 나열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 국한문을 이질적인 두 체계의 병렬로 기술하게 될 수도 있다. 후자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국한문 혼용문은 국문이나 한문의 어느 한 쪽의 문법 체계로는 기술하기 어렵다. 국문과 한문을 아는 사람이 이 두 문법을 사용하여 작성한 글이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는 코드 바꾸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고에서는 국문의 관점, 특히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서유견문』의 국한문 혼용문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한문 혼용문이 국문을 지향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문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오늘 날의 국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한문 혼용문을 국문의 문법 체계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 통시적 관점에서는 더 적합할 것이다.⁵⁾

2) 여기서는 국문을 국어 또는 국어 문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3) 국한문이 워낙 다양한 문체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규태(1991:762)에서는 이를 한주언종문, 언주한종문, 한주국종문, 국주한종문으로 나누었다(김형철, 1994:102에서 재인용).

4) 개화기 문어의 발달을 기술하면서 이를 문체와 관련해서 기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기문(1970), 김완진(1983), 이병근(1986), 심재기(1992), 민현식(1994), 김형철(1994) 등에서 국문, 국한문, 한문을 모두 문체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듯한데 적어도 한문에 대해서는 문체의 차원에서 기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문은 한국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문체를 한 언어 내의 변이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다른 언어인 한문에 대해서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5) 품사론의 체계는 현행 학교문법(교육부, 1996)을 따랐다.

2. 단위 설정의 문제

『서유견문』은 국한문 혼용문이며, 국한자 혼용으로 쓰여져 있다.⁶⁾ 아래 서문의 첫 부분을 보면서 『서유견문』의 언어적 특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분석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서유견문』은 세로쓰기를 채택하였으며 띠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띠어 쓰기가 언어 단위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띠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단위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런데 『서유견문』은 국한문이며 국한자 혼용이기 때문에 표기의 구별이 단위의 분석에 큰 도움을 준다. 이것은 일본의 표기와도 유사한 측면을 보여 준다. 『서유견문』은 주로 문법 형태소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경계로 하여 문법 단위를 구획할 수 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옮겨 본다.

聖上御極きしん十八年辛巳春에 余가 東으로 日本에 遊くわう야 其人民의 勸勵
hon 習俗과 事物의 繁殖호 景像을 見くхи 이 糜料호 든 배 아니러니 及 其國中の 多
聞博學의 士를 從くわう야 論議唱酬호 는 際에 其意를 探하고 新見奇文의 書를 閲
호 야 反覆審究호 는 間에 其事를 考호 야 實境을 透解호 며 詞界를 披開호 則
其施措規範이 泰西의 風을 摥倣호 者가 十의 八九를 是居호 니 盖日本이 歐洲
和蘭國과 其交를 通호 이 二百餘年에 過호 나 夷狄으로 擃斥호 야 邊門의 關市
를 許호 づ름이러니 還來歐美諸邦의 約을 訂結호 後로 브터 交誼의 敦密호 을 隨
호 며 時機의 變改호 을 察호 야 彼의 長技를 是取호 며 規製를 是襲호 으로 三十年間에 如斯히 其富強을 致호 이니 然則紅毛碧眼의 才藝見識이 人에 過호 者
가 必有호 이오 余의 舊日量度호 바くち 純然호 蟻種에 不止호 이라⁷⁾

위와 같이 띠어쓰기를 하면 띠어 쓴 것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를 구획할 수 있을 것이다.⁸⁾ 문법 형태소가 대개 고유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표기되어

6) 본고에서는 국한문을 한문과 국문(국어)의 혼합이라는 점에서 국한문 혼용문 또는 국한문이라 부르고 표기에서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것을 국한자나 국한자 혼용이라고 부를 것이다.

7) “糜料호 든 배 아니러니”는 ‘배’가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며 “許호 づ름이러니” 역시 마찬가지이나 일단 기준에 따라 붙여 썼다. 또한 “披開호 則”에서 ‘느’는 하나의 어미로 분석될 수도 있으나 우선은 기준에 맞추어 띠어 썼다.

있다. 따라서 이것이 띄어쓰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어절 내부의 구조에 대한 기술이다. 편의상 한글로 표기된 부분을 경계로 하여 어절을 나누었으나 한자로 표기된 부분이 통사적으로 둘 이상의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들을 어떤 기준에서 나눌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聖上御極호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신’을 제외하면 아마도 ‘聖上’과 ‘御極호-’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聖上’은 ‘御極호-’의 주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식의 주어인 것이다. 만약 ‘聖上御極호-’라는 용언으로 분석한다면 선어 말 어미 ‘-시-’의 출현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구성은 ‘[[聖上 御極호]신]’으로 분석되어야 한다.⁹⁾

“十八年辛巳春에” 역시 둘 이상의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 ‘에’를 제외하면 최소한 ‘十八年’과 ‘辛巳春’으로 나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十八年 辛巳 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마도 직관일 가능성이 크다. 각각의 단위가 단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직관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이 국문의 문법적 특징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其人民의” 역시 분석의 문제를 안겨 준다. 조사 ‘의’를 분석해 내면 ‘其’와 ‘人民’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둘로 분석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대국어에 대해서 지시적인 기능을 가지는 ‘이’와 의존 명사 ‘것’의 결합을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여 ‘이것’이라는 대명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 ‘其人民’도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직관이 허용하지 않는 듯하다. ‘이것’을 대명사로 보는 근거는 ‘이’와 ‘것’이 단단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인식된다는 직관에 의한 것이라면 반대로 ‘其人民’은 그러한 결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其’와 ‘人民’을 분석해 내고 이들을 각각 관형사와 명사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¹⁰⁾

8) 물론 이것은 띄어쓰기가 문법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 이 구조는 어미를 통사 단위로 인정하고 주어를 동사구 내에 두는 최근의 흐름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其國中의”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조사 ‘의’를 제외하고 ‘其 國 中’으로 나눌 수도 있고 ‘其 國 中’으로 나눌 수도 있고 ‘其國 中’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는 ‘其’와 ‘中’의 지위에 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현대국어에서도 ‘中’은 그 품사적인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 사전에서는 의존 명사와 접미사의 동음이의의 ‘中’을 인정한다. 이는 국어의 체계에서 한자어가 갖는 특이한 위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접두사와 관형사, 접미사와 의존 명사의 구별이 한자어에 대해서는 그리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적인 사용을 고려한다면 ‘其’와 ‘中’을 모두 개별적인 단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其’는 관형사이며 ‘中’은 명사이다. 의존 명사인지는 다시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其交률”은 “[其] [交] [률]”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蓋日本이”, “邇來歐美諸邦의”, “然則紅毛碧眼의”와 같은 구성이 있다. ‘蓋’, ‘邇來’, ‘然則’은 부사적인 기능을 하는 데 이들은 후행하는 ‘日本, 歐美諸邦, 紅毛碧眼’을 수식하지는 않고 서술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들은 후행 요소와 분리되어 분석된다. 이들은 부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舊日量度호”的 ‘舊日’은 후행 요소와 분리될 수 있는데 후행 요소가 서술어이므로 이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적인 기능을 한다. 이를 부사로 분류할 것인지 명사로 분류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명사가 부사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한문 혼용문의 경우에는 단위의 설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음운론적인 기준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대상이 문어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한문 또는 중국어에서는 대개 통사적인 단위가 1음절 형태소로 구성되어 음운론적 휴지 없이도 문장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음운론적인 자립성은 통사 단위의 설정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통사적인 기능만으로 단어를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¹¹⁾

10) ‘人民’은 일단 한 단어로 분석한다. ‘人’과 ‘民’이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명사 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1) 이는 대개 문법 형태소로 알려진 조사와 어미를 독자적인 통사 단위로 설정하려는

정확하게 통사적인 기능과 단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다. 따라서 국한문 혼용문에 대해서 통사 단위의 설정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이들 논의를 참고하기는 어렵다. 특히 어휘 형태소의 경우에는 이들의 통사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주로 후행하는 문법 형태소와의 결합에 의존하므로 선행하는 요소와의 분석이 쉽지 않다. 위에서 본 것처럼 2음절 이상의 한자어 연쇄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본고에서는 국어 문법 기술에서의 관례를 따라 분석하는 길을 택하기로 한다. 비록 국한문 혼용문이 한문과 국문의 혼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결국은 국문의 형태로 귀착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어 문법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는 것들을 국어의 문법에 맞추어 분석하기로 한다. 현대국어에서도 한자어 구성은 통사적인 구성이 아니라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십중팔구’, ‘백문이불여일견’과 같은 굳어진 한자어 구성은 하나의 통사 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다.¹²⁾

물론 모든 한자어 구성은 이렇게 국어 문법의 관점에서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국어에서 한자어는 대개 2음절 이상이 하나의 통사 단위로 사용되는 데 비해 개화기의 국한문 혼용문에서는 한자어 1음절 형태소가 한문의 관습에 따라 독자적인 통사 단위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용언류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국어 문법의 장치를 동원하지 않고도 통사적인 단위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이들은 독자적인 통사 단위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즉 1음절로 나타난 경우에는 통사 단위로 분석하지만 2음절 이상으로 나타난 것도 각각의 1음절 통사 단위의 통사적 결합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즉 ‘人民’의 경우를 ‘人’

노력과 관련된다.

12) 이런 식의 굳어진 표현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현대국어에서도 비록 인용적인 용법이기는 하나 구 구성에 ‘-하-’가 붙은 용법을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以國文爲本韓’은 구 구성에 ‘-하-’가 붙은 것이다.

1880년대의 국한문 사용에 대한 여러 시도를 거쳐 1894년에는 勅諭으로 “法律勅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으로 일단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極吉濬은 『西遊見聞』 간행 이후에도 以國文爲本한 바 없다(이병근, 2000 : 316).

과 '民'의 두 단어, 즉 두 개의 통사 단위가 통사적으로 결합된 구성으로 분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형태론적인 구성이며 복합어로 분석될 수 있다. '人'이 단독으로 사용된다면 물론 이는 단독으로 통사 단위가 되며 명사로 분석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한문 혼용문이 국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국한문 혼용문은 한문 구성을 깨고 그 구성을 국문 문법의 구성에 맞추는 데서 출발한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한문 구성의 성격이 문장 단위에서 점차 아래로 깨져서 구 구성의 차원 아래까지 깨지게 되면 그것은 국문 문법의 실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서유견문』은 사실 그러한 단계에 거의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3. 품사론

3.1. 체언

3.1.1. 체언의 특징

『서유견문』에 나오는 체언을 학교 문법의 체계에 따르면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체언은 한자어라고 할 수 있다. 고유어 체언은 명사 일부와 의존 명사 일부에 국한되며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이다. 대명사나 수사에서는 고유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체언 분류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낳게 된다. 어디까지를 단어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체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서 명사구인지 명사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단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¹³⁾ 현대국어에 대해서도 2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단어로 보고 1음절

13) 구체적인 어휘 색인은 이한섭 외(2000)을 참조할 수 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체언의 분석 기준은 본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 경우에는 어근으로 보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1.2. 명사

명사는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현대국어와는 달리 1 음절 한자어 명사가 많이 나타난다. 고유어 계통의 명사는 ‘가스리, 덕, 나모, 품, 비암딸기, 상훼’ 따위가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문장 속에서 사용되지 않고 예로 드는 사물을 가리키는 용법에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함석, 병마기, 假面탈’과 같은 용례에서 고유어 계통의 명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의존명사로는 ‘더로, 쟈롭, 배/바, 쟁, 씨, 이, 지’ 등이 있다. ‘더로’와 ‘지’는 기능에서 현대국어와 차이가 없다. ‘바’는 영어의 관계 대명사처럼 사용된 용법도 보인다. ‘바’는 ‘배’와 이형태 관계에 있다. ‘배’는 ‘바’와 ‘이’로 분석될 수 없으며 ‘바’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 ‘쟁’은 조사 ‘에’를 취하거나 명사 ‘외’에 선행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것’에 해당하는 용법을 보여 주는데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분석될 수 있다.

(1) 法律을 定호는니에서 敎化률 務호기에 在호되(265)

표기에서 전혀 분석되지 않았으나 기능으로 보아 ‘定호는 이애서’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률을 정하는 것보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 예에서의 ‘애서’는 다른 구성에서처럼 비교의 기능을 하는 조사로 쓰인 것이다.

‘디’는 의존 명사로 분석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구성에 나타난다. 전체 구성이 어미처럼 보이기도 하나 계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의존 명사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르디나, -르디니, -르디며, -르디로되, -르디어눌, -르디라도, -르디라, -르디오, -르디어다, -르딘더, -르디언정, -슬르디어눌, -르딘則, -르디언 마는, -르딘져

위에서 관형사형 ‘-을/ㄹ’을 분석해 볼 수 있고 ‘디’와 후행 어미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둘 사이에는 형용사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⁴⁾ 즉 ‘-르디나’는 ‘-ㄹ 디+이+나’로 분석되는 것이다. 형용사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안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체계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르디어다’, ‘-르디언정’에서는 ‘-어다’, ‘-언정’이 각각 분석되는데 이들은 『서유견문』에서는 어미나 어미 결합체로 나타나지 않는다.¹⁵⁾ 이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들 예에서 의존 명사 ‘디’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김동언(1999 : 87~9)에서 ‘-을지어다’와 ‘-을지언정’을 각각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분석하는 것을 따라 각각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분석한다.

의존 명사의 설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한자어들이다. 이들은 독립된 용법도 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의존 명사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자어 의존 명사에는 ‘間, 故, 事, 時, 外, 者, 前, 際, 中, 體, 後, 然後, 氏’ 등이 있다. 이들은 관형사절에 후행하거나 명사에 후행한다.

‘故’는 조사 ‘로’와 결합해서만 나타나므로 ‘故로’ 전체를 의존 명사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事’는 개화기에 자주 종결어미처럼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도 주로 그러한 용법으로 나타난다. ‘外’는 관형사형 어미나 명사에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이하게 명사형 어미 ‘-기’에 후행한 예가 나타난다.

3.1.3. 대명사

인칭 대명사로서는 ‘余, 我, 爾, 貴公, 彼’가 있다. ‘余’와 ‘我’는 1인칭이며 ‘爾, 貴公’은 2인칭이며 ‘彼’는 3인칭이다. 재귀 대명사로 알려진 ‘自己’도 나타난다. 이외에도 ‘吾人, 我邦’이 있는데 이들을 대명사로 부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吾人’은 복수의 1인칭 대명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吾’가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吾人’을 한 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 ‘我

14)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라고 부르는 ‘이-’를 여기서는 형용사로 분류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임홍빈·장소원(1995 : 232~243)에 나와 있다.

15) ‘-디어다’에서 선어말 어미 ‘-어-’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듯하나 그럴 경우에는 개화기에 선어말 어미 ‘-어-’의 존재를 상정해야 할 것이다.

邦'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으로 인물과 관련해서 1인칭과 2인칭을 설정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대명사로 보기 어렵다. 이외에 '彼我'가 있는데 이를 각각의 대명사가 통사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3인칭과 1인칭의 접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므로 명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른 예로 '何人'이 있는데 이를 한 단어로 본다면 의문의 3인칭 대명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언급되지만 이들이 각각의 단위로 쓰이는지 아니면 한 단위로 쓰이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何'가 독립된 용법을 보이는 예가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何人'을 통사적인 구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지시 대명사의 예는 '此'를 들 수 있다. 그런데 '此'는 지시 관형사의 용법도 가진다. 그러나 이를 지시 대명사가 관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면 그 용법의 '此'도 대명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정 대명사로 '某'를 상정할 수 있다. 비록 명사 앞에 나타난 예가 암도적으로 많으나 조사를 취한 예(男子 某는 年紀가 長成^호며 ; 389)가 있으므로 대명사로 분석할 수 있다.

3.1.4. 수사

수사는 모두 한자어이다. 고유어 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문법에서 는 형태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수사와 수관형사를 따로 설정하나 『서유견문』의 수사는 명사에 선행하는 경우에도 형태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수 관형사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사로 설정하고 이들이 명사에 선행한다고 기술할 수 있다.

3.2. 용언

3.2.1. 용언의 특징

『서유견문』에 나오는 용언의 근본적인 특징은 대부분의 용언이 파생어라는 점이다. 고유어 용언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며 대개가 한자어 용언이다. 그런데 한자어 자체가 바로 용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생 접미사인

'-흐-'와 결합해서 사용된다. 이 점이 용언에서 가장 큰 특징이 된다. 이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에 공통적이다. 다만 '-흐-'를 용언 파생 접미사라고 하지 않는다면 동사를 파생한 '-흐-'는 동사 파생 접미사로 형용사를 파생한 '-흐-'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형용사에는 파생 접미사 '-롭-'이 결합한 '榮華롭-'이 나타나기도 한다. 수가 적기는 하나 '-되-'와 결합한 용언도 있다. '雇傭되-'와 같은 동사가 그 예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상의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의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한 경우에는 동사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용사로 분류된다. 또는 타동사의 경우처럼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에는 활용상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도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고유어 용언으로는 '흐-, 되-, 아니-, 이-, 삼-, 없-, 잊-, 마이-, 굴-'¹⁶⁾ 따위가 있다. 이들은 수적으로 한자어 계통의 용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

한자어에 접미사가 결합되지 않은 예로 '諾다', '潤色디', '曰오더'가 있다.

- (3) 가. 新郎과 新婦가 俱應 曰 諾다 誠實호 信義로 然흐다 旱거든(392)
 나. 便利호 道理를 經營하았드면 千萬事物이 今日에 至흐야 天下萬國
 의 名譽가 我邦에 歸흐앗슬디어눌 後輩가 前人의 舊規률 潤色디 아
 니홈이로다(384)
 다. 市上에 彷徨흐야 曰오더 我는 十金으로 百金值의 物品을 購흐는 能
 力이 有흐다 旱면(216)

(3가) 구성을 '諾이다'와 같이 해석한다면 특이한 구성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諾흐다'에서 '-흐-'가 탈락된 구성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후행 문장에서 '然흐다'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후자가 더 적절한 분석으로 여겨진다. (3나) 역시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다. '潤色흐디'에서 '-흐-'가 탈락된 것이다. 둘 다 'ㄱ'과 'ㄷ' 사이에서 탈락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음운론적으로 일정한 규칙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國人의 出斂호 財物을 都合지

16) '굴-'은 '又론, 又기도'로 나타난다.

가. 平床 又론 者(37)
 나. 弓背 又기도 旱고(57)

아니호면(194)"에서는 '님' 아래에서 '호'가 탈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滄海에 流入호지 아니호는 者를 謂호이오 (58)"가 나타난다. 그런데 (3다)는 접미사가 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듯하다. '호'이 탈락한 것으로 생각된다.

파생 접미사 '-호-'가 결합한 용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단위이다. 구 구성에 '-호-'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언의 경우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4) 가. 耳는 大且凸호며(63)

나. 北極을 從호야 南行 九十度호며(4)

'大且凸호-'는 하나의 단어로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현재도 '重且大하-'와 같은 형용사가 있고 이를 한 단어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4나)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다. '九十度호-'라는 동사를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를 동사로 인정한다면 '南行'은 목적어로 해석된다. 실제 해석은 '90도를 남행하여'가 될 것이며 '-호-'가 붙은 것도 '行'의 동작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동사로 실현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현재의 체계 속에 이 예를 포함시키려면 '南行九十度호-'라는 동사를 인정하거나 '九十度호-'라는 동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잠정적으로 후자를 선택하기로 하나 '九十度'가 구 구성이라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대용언이라 부를 만한 용언들도 나타난다. '然호-, 亦然호-, 如是호-, 如此호-' 따위가 그것이다. '如是호-'와 '如此호-'는 한문 구성으로 보면 통사적인 구성을이나 『서유견문』의 국한문 혼용문에서는 하나의 단위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대용언에 포함시킨다.

3.2.2. 보조 용언

보조 용언에서는 고유어 계통의 어휘가 많이 나타난다. '듯호-, 말-, 못호-, 아니호-/아니-, 호-,勿호-' 따위의 보조 용언이 사용된다. '勿호-'가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이들의 용법은 현대국어와 동일하다. '아니호-'는 '호'가 탈

락된 ‘아니-’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특정적인 것으로는 ‘勿^흐-’를 들 수 있다. ‘말-’이나 ‘못^흐-’ ‘아니^흐-’와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를 보조적 연결 어미로 취한다.

(5) 他人을 妨害^흐지도勿^흐며 ; 109

3.2.3. 용언의 활용

용언의 활용 양상은 매우 단순한 편이다. 용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용언이 ‘-흐-’ 파생 용언이기 때문에 활용상의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흐-’ 파생 용언이 어미를 취할 때 선어말 어미 ‘-엇-’은 ‘-엿-’이나 ‘-얏-’으로 교체하며 연결 어미 ‘-어’, ‘-어야’는 규칙적으로 ‘-야’, ‘-여야’로 교체한다. 어말 어미 ‘-어’가 ‘-야’로 교체하는 것은 용언 ‘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¹⁷⁾

‘이-’와 ‘아니-’의 경우는 중세국어적인 활용 양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들에 후행하는 선어말 어미 ‘-더-’는 ‘-라-’로 교체하고 연결 어미 ‘-고’, ‘-거든’, ‘-거늘’, ‘-어도’, ‘-오더’, ‘-거니와’, ‘-어야’는 ‘-오’, ‘-어든’, ‘-어늘’, ‘-라도’, ‘-로더’, ‘-거니와’, ‘-라야’로 교체하며 ‘-고’가 ‘-요’로 교체한 예도 나타난다. 어말 어미 ‘-다’, ‘-도다’는 ‘-라’, ‘-로다’로 교체한다.

선어말 어미로는 ‘-시-’, ‘-ㄴ/-느’, ‘-더-’, ‘-리-’, ‘-엿/얏’이 나타난다. ‘-더-’는 ‘-더니’와 ‘-더라’의 구성에 주로 나타나며 ‘-터-’로 나타난 예도 있으나 이는 오포기인 듯하다(自生^흐터라 ; 495). ‘-ㄴ-’은 ‘-다’ 앞에서는 ‘-ㄴ-’으로 나타난다(害^흐다 ; 102).

위의 선어말 어미 외에도 ‘-도-’, ‘-니-’를 더 설정할 수 있다(김동언, 1999 : 84~85). 이들은 ‘-도다’, ‘-니라’와 같은 구성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미 이 시기에는 종결 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 선어말 어미를 분석해 내지 않는다. 김동언(1999 : 84)에서는 ‘-ㄴ-’의 이형태로 ‘-노라’의 ‘-노’를 상정하나 ‘-ㄴ다’와 비교하면 이형태로 간주하기 어렵다. ‘-노라’ 역시 종결어미

17) 교체한다고 하는 기술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용언이 ‘-흐-’ 파생 용언이므로 본고에서 상정한 ‘-엇-’, ‘-어’, ‘-어야’ 등이 실제로 『서유견문』에서 문 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어말 어미 ‘-거-’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미 이 단계에서는 선어말 어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김유범, 1998).

연결 어미는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보조적 연결 어미에는 ‘-게(-케), -지’가 나타난다. 이들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용법을 보인다. ‘-게’는 ‘-게 헤’ 구성에, ‘-지’는 ‘-지 아니 헤’ 구성에 나타난다.

대등적 연결 어미로는 ‘-고/오/요, -며, -며셔, -면셔, -거나, -나, -든지/던지, -든가’ 따위가 있다. 대등적 연결 어미의 용법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른 점은 없다. ‘-고’는 ‘이-’와 ‘아니-’ 뒤에서는 ‘-오’로 교체되며 주로 나열의 의미로 사용된다. ‘-며’ 역시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데 ‘-며셔, -면셔’는 동시의 의미를 가진다. ‘-나, -든지/던지, -든가’는 선택의 의미를 가진다. 현대국어와 큰 차이가 없다.

종속적 연결어미로는 ‘-ㅁ익/ㅁ애/ሚ, -여야/라야, -야, -근식, -거늘/어늘, -거든/가든/어든, -건더/전더, -니, -ㄴ더, -오더/오대/로더/샤대/으되, -면/으면, -ㄴ則, -ㄴ則已어니와, -거니와/어니와, -려니와/려이와, -다가, -여도/야도/라도, -ㄴ둘/둘, -근스록, -도록, -고쳐, -관더, -ㄴ지라, -련마눈/언마눈, -ㄹ뿐더러/ㄹ뿐터러/음뿐더러’ 등이 나타난다. 이들 중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은 ‘이-’나 ‘아니-’ 뒤에서 ‘ㄱ’이 탈락한 형태로 교체하게 되며 ‘-오더’는 ‘-로더’로 교체하게 된다. 이외의 이형태들은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쌍들이다. 다만 ‘-련마눈’이 ‘-언마눈’으로 교체하는 것은 환경은 ‘이-’나 ‘아니-’ 뒤라는 점에서는 위의 어미들과 동일하나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원인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 어미로는 ‘-ㅁ익/ㅁ애/ሚ, -거늘/어늘, -건더/전더,¹⁸⁾ -니, -ㄴ則, -ㄴ則已어니와, -관더,¹⁹⁾ -ㄴ지라/눈지라’가 있다. 이들 중에서 ‘-전더’는 ‘-건더’의 오자인 것으로 보인다. ‘-니’는 다양한 선어말

18) ‘-건더’는 이현희(1994 : 71)에 따르면 선어말 어미 ‘-거-’와 ‘-ㄴ더’가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는 ‘-거-’를 선어말 어미로 분석하지 않고 ‘-건더’ 전체를 연결 어미로 상정한다.

19) ‘-관더’는 고경태(1998 : 203)에 따르면 19세기에 소멸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서유견문』에서 발견된다.

어미와 결합하는데 ‘-더니, -느니, -리니, -노니, -거니’로 나타난다. 그런데 ‘-노-’와 ‘-거-’를 선어말 어미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니, -거니’는 별개의 연결 어미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ㄴ則’은 분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²⁰⁾ 기능상으로는 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나 ‘-ㄴ則已어니와’와 비교하면 관형사형 ‘-ㄴ’과 의존 명사 ‘則’에 ‘이-’와 ‘-어니와’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니와’라는 어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면 ‘則’은 의존 명사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ㄴ지라/는지라’는 ‘-지라’가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용법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다. ‘-야’에 ‘뼈’가 결합한 ‘-야뼈’도 원인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역시 ‘뼈’의 분석 가능성에 따라 별개의 어미로 분석될 수 있다.

조건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ㄴ더, -면/으면, -여야/-라야, -거든/거든/어든’이 있다. ‘-면’은 선어말 어미 ‘-얏’ 뒤에서는 표기상으로는 ‘-스면’으로 교체되어 ‘흐얏스면’으로 나타나며 ‘흐얏스면’에 선어말 어미 ‘-더-’가 연결된 ‘흐얏드면’이 나타난다. ‘-면’에 ‘-더-’가 연결된 ‘흐드면’도 발견된다. ‘-거든’은 수의적으로 ‘-가든’으로 교체한다.

양보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거니와/어니와, -려니와/려이와, 여도/야도/라도, -ㄴ둘/둘, -련마는/언마는, -오더/오더/로더/으되’ 등이 있다. ‘-거니와/어니와’와 ‘-려니와/려이와’는 어떤 관련을 상정할 가능성성이 있다. ‘니와’라는 공통 요소를 갖고 있으나 『서유견문』의 자료만으로는 분석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둘’은 ‘-ㄴ둘’의 오기로 보인다. ‘-오더’는 ‘-시-’와 융합하여 ‘-샤더’로 나타나기도 한다.

설명이나 배경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는 ‘-근신, -니’가 있다.²¹⁾ ‘-니’는 연결 어미라기보다는 종결 어미에 가까운 용법을 보인다. 이러한 용법은 중세국어의 용법을 계승한 것이다. 시간적인 배경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는 ‘-야’를 들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다가, -근스록, -도록, -게, -근쁜더러/옴쁜더러’ 등이 나

20) 고경태(1998 : 203~4)에서는 ‘-ㄴ즉’이 ‘-ㄴ則’으로 표기된 것이 17세기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서유견문』에서는 ‘-ㄴ則’으로만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1) 설명이나 배경의 ‘-니’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지 않았을 때의 용법이나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경우에는 원인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타난다. ‘-다가’는 전환, ‘-근스록’은 익심, ‘-도록’과 ‘-게’는 결과, ‘-근呻더리’는 추가의 의미를 표시한다. ‘-음呻더리’는 예가 많지 않아 어떤 기준에서 ‘-근呻더리’와 교체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종결어미에는 ‘-ㄴ다 -나라 -라 -노라 -리라 -더라 -근디라 -근디오 -근디어다 -오, -라 -ㄴ가 -눈가 -눈고 -ㄴ지 -근가 -고 -도다 -로다 -로라 -ㄴ디라, 근딘져’ 등이 있는데 이들은 더 분석할 여지가 있다. 선행 요소는 대개 선어말 어미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분석하고 나면 ‘-다/라, -나라, -오, -ㄴ가/눈가, -눈고, -ㄴ지, -근가, -도다/로다/로라, -ㄴ디라, -근딘져’로 줄어든다.

평서형 어미로는 ‘-다’가 대표적이다. 선행하는 요소에 따라 ‘-라’로 교체되는데 형용사 ‘이-, 아니’ 뒤나 선어말 어미 ‘-리-, -더-’ 뒤에 올 때 ‘-라’로 교체된다. ‘-다’ 외에 ‘-나라, -노라, -근디어다’를 설정할 수 있다. 이들은 더 분석될 여지가 있으나 ‘-니’, ‘-노’, ‘근디어-’를 분석해 내기 어려워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다.

의문형 어미로는 ‘-오, -ㄴ가/눈가, -눈고, -ㄴ지, -근가, -고’가 있다. ‘-눈지/-지’는 내포문에 사용되는 예만 나타난다. 따라서 내포문 어미로 본다면 종결 어미에 넣을 수 없을 것이다. ‘-고’는 ‘何則고’와 같이 ‘이-’의 도움 없이 체언에 바로 결합하였다. ‘이-’의 탈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요소로 볼 것인지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 중세국어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서유견문』의 체계에서는 ‘이-’가 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명령형 어미는 인용 구성에서만 나타날 뿐이다. 청유형 어미는 보이지 않는다. 감탄형 어미는 ‘-도다/-로다’이다.²²⁾ ‘-눈디라’, ‘-근딘져’는 분석에 문제가 된다. 전체가 하나의 어미라고 하기에는 구성이 복합적이나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비교를 통한 분석이 여의치 않다. 또한 ‘-눈디라’는 종결 어미인지 연결 어미인지가 문제가 되나 ‘-는지라’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원인의 연결 어미로 분류한다. ‘-근딘져’는 ‘근 디+이+ㄴ져’로 분석할 수

22) 김동언(1999: 84~85)에서는 ‘-도다, -로다’를 선어말 어미 ‘-도-, -로-’와 종결 어미 ‘-다’의 결합으로 분석하나 본고에서는 이 구성 이외에 ‘-도-, -로-’가 나타나는 예가 없는 점을 충시하여 ‘-도다, -로다’ 전체를 종결 어미로 파악한다.

있는데 ‘-ㄴ져’는 감탄형 어미로 분류된다.

전성어미에는 명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있는데 전자에는 ‘-음/ㅁ, -기’가 있고 후자에는 ‘-ㄴ, -ㄹ’이 있다. ‘-음’과 ‘-ㅁ’의 교체는 조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시-’에 후행할 경우에는 ‘-ㅁ’으로만 나타난다.

‘-기’의 경우는 현재의 용법과 동일하나 접속 조사 ‘-와’와 결합하는 것이 자주 나타난다. 현재도 이러한 용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연스럽지는 않다.

관형사형 어미는 최근에도 분석의 한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여기서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나타나는 어형은 ‘-는, -든’인데 이 구성에서 ‘-느-’와 ‘-드-’를 분석해 내면 관형사형 어미는 ‘-ㄴ’과 ‘-ㄹ’의 두 가지가 될 것이나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선어말 어미 ‘-더-’를 저자인 유길준이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기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든’의 분석이 결정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능상의 유사성에 따라 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든’을 과거의 선어말 어미 ‘-드-’와 관형사형 어미 ‘-ㄴ’으로 분석한다.

3.3. 수식언

3.3.1. 부사

『서유견문』에서 부사는 한자어 어근에 파생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 고유어 계통의 부사와 한자어 부사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자어 계통의 부사인데 그 이유는 한자어 계통의 부사는 후행하는 용언과의 분석에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자어 어근에 파생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으로는 ‘可히, 能히, 足히, 自然히, 必然히, 空然히, 卒然히’ 등으로 그 수가 매우 많다. 현대국어에서 ‘용언 어간+계’가 나타나는 환경에서도 ‘-히’로 파생된 부사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1) 此는 人民의 知識을 廣博히 하며 才藝를 高明히 하고(154)

생산성의 차원에서 보면 굴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생산적이다. 그러나 ‘-히’가 전통적으로 부사 파생 접미사로 불린 것을 고려하여 이들을 파생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파생 접미사 ‘-이’에 의해 부사로 파생된 예도 눈에 띈다. ‘同等이’가 그것이다. 이는 ‘-히’가 유성음 환경에서 수의적으로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同等히’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반대로 ‘妄俗되히’처럼 부사파생 접미사 ‘-이’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달리 ‘-히’로 나타나는 예도 있다. 또한 ‘明白키, 悅樂키, 廣博키’와 같이 표기된 부사들도 있다. 이들은 일종의 중첩 표기인데 ‘廣博히’와 같은 표기 도 보인다.

고유어 부사도 제법 많이 눈에 띈다. ‘먼저(만저), 더브러, 흐여곰(흐야곰), 듯, 듯시, 乙치, 엇디(엇지)’ 등이 그것이다. ‘더브러, 흐여곰’은 전이어로 한문 번역투의 문장에 자주 나타나는 예들이다. 나머지 부사들은 현대국어의 대용형들과 용법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통사적인 구성이 굳어져서 이루어진 부사들도 있다. ‘臆地로, 日로, 決斷코, 大概로’ 등은 통사적 구성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파생인지 통사적 구성이 굳어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全 혀’도 나타난다.

분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한자어 부사들이다. 이들은 후행하는 요소와 하나의 단위로 분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蓋, 遂乃, 亦, 或, 曰, 今, 又, 夫, 大約, 猶且, 奈何, 惟, 大槩, 姑, 各, 皆, 必, 往往, 本來, 每樣, 姑且, 萬若, 若, 猶且, 設或, 雖, 然則, 况, 是乃, 大抵, 假令, 却且, 却, 必然, 恒常, 豈, 忽然, 誠, 大約, 實’ 등이 부사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현대국어에서 부사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 한문 구성에서만 나타나는 것들도 있다.

이들 부사 중에서 1음절로 되어 있는 것들은 특히 후행하는 요소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6) 가. 亦 或 書籍에 傍考 흐야(서1)

나. 此地를 名 흐야 曰 世界의 脊이라(22)

다. 今 夫 地球의 全面을 他計 흐건더(2)

라. 三百六十度가 十二時間에 各 其 畫夜의 次序가 有 흠이오(5)

마. 此는 的實司 動物 及 植物이 必 相易호다 謂홈 아니오(8)

바. 其 通義는 必 其人에게 屬하야(111)

사. 他人의 可助호 理가 必無호되(106)

(6가)의 ‘亦或’이 ‘또 혹은’의 뜻이라 해도 이들이 각각 하나의 단어인지 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합성어인 경우에 의미의 변화가 없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특별히 합성어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에는 각각을 분석하는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亦’, ‘或’은 각각 별개의 부사 로 분석된다. (6다)와 (6라)의 경우도 비슷하다. 특히 ‘各其’의 경우는 현대 국어에서 하나의 단어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각각 그’와 같은 의미 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단어로 분석할 수 있다.²³⁾

(6나)는 일단 임여적인 성격을 보이므로 부사로 분석될 수 있으나 그 의미나 기능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의미나 기능이 상당히 동사에 가깝다. 국립국어연구원(1999 : 4557)에서는 ‘왈’에 대해 ‘동사적으로 쓰여’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동사가 되려면 주어를 취해야 하므로 ‘曰’이 주어를 취하거나 부사어, 목적어 따위를 취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사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문장은 ‘曰’이 다른 성분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6') 나. 今 其 遊星을 數호건되 一 曰 水星 二 曰 金星 三 曰 地球 四 曰 火星 五 曰 木星 六 曰 土星 七 曰 天王星 八 曰 海龍星이니(1)

‘一’을 목적어로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하면 ‘一 曰 水星’은 ‘一을 말하면 水星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一은 말하자면 水星이다’ 정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曰’은 부사로 볼 수 있다.

(6마)는 용언의 분석에서도 문제가 되는 예이다. 부사와 용언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두 품사의 분석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한섭 외(2000)에 서는 해당 구성이 2음절인 경우에는 부사와 용언으로 분석하지 않고 전체

23) 이한섭 외(2000 : 19)에서는 ‘各其’를 하나의 단위로 분석한다.

를 하나의 용언으로 분석했다. 즉 (6사)의 ‘必無^한-’를 용언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6마)는 ‘必’과 ‘相易^한-’로 분석하였다. 이는 음절수가 한국어의 단어 경계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국어에서도 어근이 2음절 이하나 아니나 하는 것은 표제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필요충분하-’, ‘필수불가결하-’와 같은 표제어가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必無^한-’와 같은 용언은 하나의 단어로 분석한다. ‘必相易^한-’를 ‘必 相易^한-’로 분석하더라도 더 나아가 ‘相易^한-’를 ‘相 易^한-’로 분석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분석은 한문의 문법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²⁴⁾

3.3.2. 관형사

관형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其’이다. 이한섭 외(2000 : 112~120)에 따라 지시적인 용법의 ‘其’는 단독으로 조사와 결합하는 예가 없어 전형적인 관형사로 분석된다.

(7) 地球는 吾人の 住居^한는 世界니 亦 遊星의 一이라 今 其 遊星을 數^한 건터(1)

‘某, 諸, 每’ 역시 관형사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某’는 조사와 결합한 예가 하나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某’는 대명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諸’와 ‘每’는 독자적으로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된 예가 없으므로 관형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3.4. 독립언

감탄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감탄의 기능을 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통사 구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24) 국문 문헌에 대한 평범위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이들이 하나의 단어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8) 가. 呼라 教育의 不立hon 流弊가 其甚^한기 此에 至^한도다(102)
 나. 嗟呼라 何人이 其子를 不愛^한며 其國을 不憂^한리오(315)

위 ‘吁라’, ‘嗟呼라’를 통사 구성으로 본다면 ‘명사+이+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주어의 복원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용언 구성에 주어를 상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불이야, 도둑이야’ 따위 역시 쉽게 주어를 상정하기 어려운 구성이다. 이를 통사적인 구성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들 구성 자체가 감탄사라고 해야 할 텐데 그 역시 해당 구성의 구성 원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정당한 처리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구성을 인정하면 이는 ‘吁+이+라’, ‘嗟呼+이+라’로 분석하고 주어는 상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처리를 따르게 되면 『서유견문』에는 감탄사가 없게 된다.

3.5. 관계언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누는데 격조사에는 주격 조사, 보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 접속 조사가 있다. 격조사에는 ‘이/가, 을/를(롬), 애/애/여, 에게(에케), 드랴/드려, 에서/애서, 으로(오로)/로(노), 으로빠/로빠, 의, 로브터(로봇터)으르부터, 朱치, 쳐름, 만콤, 더로(더도), 이어서, 며, 과/와’ 등이 있다.²⁵⁾ 보조사에는 ‘눈/은/ㄴ, 도, 마는, 이라도/라도(라두), 이든지/든지, 이나/나, 마다, 짜지, 쑨, 만, 식’ 등이 있다.

조사는 선행 체언의 말음이 자음인가 아닌가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주격 조사는 선행 체언의 말음이 자음이면 ‘이’가 선택되고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선택된다.²⁶⁾ 보격 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목적격 조사는 선행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이 선택되고 모음으로 끝나면 ‘를’이 선택된다. 이러한 교체는 부사격 조사 ‘으로/로, 으로빠/로빠, 으르부터/로브터’에서도

25) 위의 예에서 ‘롬, 에케, 오로, 노, 더도’ 등은 각각 ‘를, 에게, 으로, 로, 더로’의 오자로 보인다.

26) 흥윤표(1994 : 417)에 따르면 주격 조사가 현대국어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19세기 말의 일인데 『서유견문』에서 이러한 경향이 정착된 것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사인 ‘은/는, 이라도/라도, 이든지/든지, 이나/나’에서도 이러한 교체 양상을 볼 수 있다.

비교의 부사격 조사 ‘이어서’만이 나타나고 ‘보다’는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의 기능은 ‘에셔’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이어서’와 ‘에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들이 동일한 조사의 교체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 비슷한 기능을 가진 별개의 조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소와 관련된 부사격 조사는 ‘애/에/여’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조건에 따라 교체하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애’가 앞부분에 많이 나오고 ‘애’가 책 뒷부분에 많이 나온다.²⁷⁾ 집필한 시기와 관련이 있을 듯도 하다. ‘의’가 나타날 자리에 ‘애’가 나타난 예(自己에 傳語線; 482)도 보인다.

‘에게’는 유정 체언에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小國에게 慢侮를 當하며(150)와 같은 예외도 나타나나 이 예에서 ‘小國’이 의미상으로는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에게’는 ‘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의 용법도 가진다. ‘드라/드려’는 현대의 ‘더러’처럼 후행 용언이 언어적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9) 가. 政府드라 其 職分을 行혔라 責望흐면(200)

나. 新郎드려 問혔야 曰호티(392)

‘으로/로’ 역시 선행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교체된다.²⁸⁾ ‘-ㅁ으로’는 이미 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으로빠/로빠’는 ‘으로/로’와 비교하면 분석이 될 듯하나 ‘빠’가 독자적인 단위로 분석되기 어려워 하나의 조사로 보아야 할 듯하다.²⁹⁾ 이는 ‘로브터/으르브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브터’는 동사의 활용형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한 것이다. ‘브터’를 보조사로 본다면 이 구성을 분석할 수 있으나

27) ‘에셔’와 ‘애셔’도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28) 예외적으로 ‘西으로’라는 예가 보인다.

29) ‘-야빠’가 존재하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 ‘-빠’가 분석될 듯도 하나 뚜렷한 의미 기능의 설정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서유견문』에서는 ‘브터’가 다른 구성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체 구성을 하나의 조사로 본다. ‘굿치, 쳐름, 만콤, 더로’는 현대국어의 ‘같이, 처럼, 만큼, 대로’와 용법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관형격 조사는 ‘의’로 나타난다. 속격의 ‘ㅅ’은 나타나지 않는다. ‘의’는 주어적 속격의 용법을 매우 많이 보인다. 특히 관형사절에서는 주어로 주격 조사를 동반한 용법보다는 ‘農工의 博物院은 政府의 公建호 者니(529)’와 같은 ‘의’ 속격의 용법이 더 많이 나타난다.

보조사 ‘눈/은/느, 도, 이라도/라도, 이든지/든지, 이나/나, 마다, 짜지, 쁘, 만, 식’은 그 용법에서 현대국어의 보조사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마는’은 의문의 ‘-리오’ 뒤에 나타나는 예만 보인다.

접속조사로는 ‘와/과’가 주로 사용된다. 이들의 교체는 현대국어와 차이가 없다. ‘며’도 ‘太陽 及 諸 遊星의 大小며 其 太陽의 距離를 記한건더(1)’와 같은 구성에서 접속의 기능을 한다.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접속의 기능을 하는 조사로는 ‘이나/나’가 있는데 ‘萬人에 一人이나 十萬人에 一人으로 (148)’과 같은 구성에서 볼 수 있다.

4. 맷음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서유견문』의 품사별 특징을 기술하였다.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서유견문』의 품사론은 한문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품사라고 하는 것이 단어들의 통사적인 기능에 따른 부류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미 『서유견문』은 통사적으로는 국문의 체계 속에 진입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사 단위를 이루는 방식이 한문의 문법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어의 체계 속에 단어들이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용언이다. 한문의 단위 그 자체가 용언이 되는 경우는 없었다. 한문의 용언은 ‘-흐-’라고 하는 접미사를 통해서 비로소 용언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부사의 경우에도 ‘-히’라고 하는 접미사를 결합한 후에 부사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의 경우에는 한자어가 특별한 국문의 문법적 요소의 도움 없이도 문장에 해당 품사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사, 대명사는 조사라는 국문의 문법적 장치와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였으므로 한문의 온전한 문법적인 기능을 유지한다고 할 수는 없다. 관형사는 특별한 장치 없이 그대로 문장에 나타났다.

문법 형태소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당연히 국문의 문법 체계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 숫자도 매우 많았다. 다소 의고적인 용법의 문법 형태소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국한문 혼용문이 한문에서 국문으로 발달하는 성격의 글이기는 하나 여전히 국문에 비해 구어의 성격을 덜 지닌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서유견문』의 품사론을 다 다루지는 못했다. 당대의 다른 문현들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는데 사정상 하지 못하였다. 국한문 혼용문의 일반적인 성격을 포착하기 위해서도 여러 문현을 비교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코드 바꾸기의 관점이나 피진의 관점에서 다를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다루지 못하였다. 후일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고경태(1998), 「근대국어의 어말어미」, 홍종선 편(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 교육부(1996),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동언(1999), 「개화기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김완진(1983), 「한국어 문체의 발달」,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 김유범(1998), 「근대국어의 선어말어미-형태와 통합순서를 중심으로」, 홍종선 편(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 김형철(1990), 「개화기 문헌의 어휘 연구—<서유견문>을 중심으로」, 『경남어문』 23, 경남대학교.
- _____ (1994), 「갑오경장기의 문체」, 『새국어생활』 4-4,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출판부.
- 민현식(1994), 「근대 국어의 문체」, 박갑수 편, 『국어 문체론』, 대한교과서(주).
- _____ (1994), 「개화기 국어의 제문제」, 『개화기의 언어와 문학』, 한글날 기념 국어국문학 학회 연합회 학술회의 발표요지.
- _____ (1999), 「개화기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심재기(1992), 「개화기 문체 양상에 관한 연구—독립신문과 한어문전의 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유길준(1895), 『서유견문』, 일본 동경 : 交詢社(유길준 전서 편찬위원회 편(1971), 『유길준 전서』, 일조각 재수록).
- 이경희(1998), 「근대국어의 격조사」, 홍종선 편(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 연구』, 일조각.
- _____ (1984), 「개화기의 국문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이병근(1986), 「개화기의 어문정책과 표기법 문제」, 『국어생활』 4, 국어연구소.
- _____ (2000), 「유길준의 어문사용과 <서유견문>」, 『진단학보』 89, 진단학회.
- 이한섭(1987), 「<서유견문>에 받아들여진 日本의 漢字語에 대하여」, 『日本學』 6,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 _____ · 최경옥 · 정영숙 · 강성아 편저(2000), 『西遊見聞(語彙索引)』, 박이정.
-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소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 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조규태(1991), 「<서유견문>의 문체」, 『들에서 재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
출판부.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Ⅰ)』, 태학사.
홍종선 편(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